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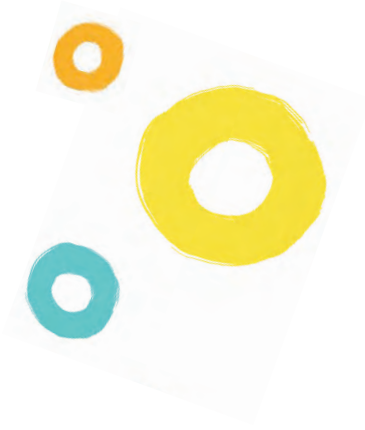
사랑으로 하나 되는

어울림



비전

함께 행복을
그리는 사람들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



거제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성미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거제시 유일 가족전문 통합지원기관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김성미센터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도 하루하루 성장을 꿈꾸고 그 가운데서 또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자 저희 센터와 전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많은 거제시의 가족을 만나고, 좀 더 많은 가족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가족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돌봄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욕구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정책방향도 변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2022년부터 "거제시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가족센터는 아동부터 부모, 노인세대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발맞추어 거제시가족센터 또한 일반 가정,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가족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소식지 '어울림'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웃음 넘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이루시길 바라며 2021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인사를 올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Contents

비전

- 03 발간사 센터장 인사말
- 05 시 '부부의 날' 참여자의 시
- 06 사업소개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의 사계절

- 08 함께 봄
- 18 함께 여름
- 24 함께 가을
- 32 함께 겨울

가족과 함께

- | | |
|---------------------------|--|
| 41 가족상담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나를 알고, 너를 알고, 함께 만드는 가족 행복이야기
나도 너희들이 제일 좋다 |
| 42 공동육아나눔터 | 함께해서 즐거운 육아 |
| 44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언어 두 개, 기쁨 두 배 |
| 45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프로그램 | 예쁘고 정다움 주말공부방 |
| 4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큰 소리로 말해요! 함께 웃어요 |
| 48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결혼이민자의 든든한 지원군 |
| 49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 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
| 50 한국어교육 | 배움의 기쁨 |

가족의 가치 價値

- 56 지역사회 네트워크 동참해주신 고마운 분들
더불어 함께, 행복한 나눔
- 59 2021년 홍보 언론 보도 / SNS 게시 / 기관 방문

비전

당신을 향한 마음

시 [‘부부의 날’ 참여자의 시]

당신을 향하는 마음이
잔잔한 바다 같았으면 합니다.
커다란 움직임에도 듣직한
그런 넓은 마음으로
당신을 안아주고 이해했으면 합니다.

당신을 향하는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석 같았으면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아끼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당신을 향하는 마음이
마음을 투영하는 거울이었으면 합니다.
당신을 비추는 거울 속에
제 마음이 녹아있어서
서로 말없이도 통하는
당신과 나,
서로의 마음이 같았으면 합니다.

당신을 향하는 마음이
해바라기 같았으면 합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듯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생각하며
당신과 오래도록 행복했으면 합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은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당신과의 인연이
너무 소중한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 그릴 수만 있습니다.

당신을 처음처럼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저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을 테니까요.



비전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미션

가족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

슬로건

우리 다 함께,
우리 다 행복하게

비전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거제시 유일 가족전문
통합지원기관

센터연혁

2008	02	거제시결혼이민자지원센터 개소(거제YWCA위탁 운영)
	03	한국어, 아동양육,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 시작
	09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 변경
2009	02	사랑의 양지꽃학교 개강 (한국어 집합교육)
	0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시작
	08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시작
2010	01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지정 (거제YWCA, 2010.1.1 ~ 2012.12.31)
2011	03	언어영재교실 사업 시작
2012	11	다문화이동도서관 개관
2013	01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거제YWCA, 2013.1.1 ~ 2015.12.31)
	03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시작
2015	09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자활센터 운영
	01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지정(거제YWCA, 2016.1.1~2018.12.31)
2017	02	옥포동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11	결혼이민자 영유아기자녀 양육서비스 시작 아주동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2019	01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변경 (거제YWCA위탁, 2019.1.1 ~ 2021.12.31)
	02	찾아가는 다문화 방문상담 서비스 시작
	06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시작
	10	상문동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2020	0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지원사업, 건강가정활성화사업 시작
	06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다음사업 시작
2021	01	예비, 신혼기부부 교실 사업 시작
2022	01	거제시가족센터 명칭 변경

비전

세상모든가족함께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소개

사업목적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가족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사업개요

-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 운영
- 초기 부모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 부모교육, 임신, 출산 부모교육 진행
-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공동체 형성

주요 사업 안내

가족관계 사업

가족형태, 생애주기, 문제유형별 가족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가족상담 사업

개인, 부부, 부모-자녀, 가족 관계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
임신출산갈등상담

가족돌봄 사업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

가족생활 사업

가족특성에 따른 맞춤형 가족생활 프로그램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
·찾아가는 이주여성 다임사업 등 인식개선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옥포 / 아주 / 상문)

지역의 부모들이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지원 등

외부지원연계사업

지역사회 다양한 유관 기관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다양한 가족지원

한국어교육운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

특성화사업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부모/자녀)

전문 지도사 파견을 통한 다문화가족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연령에 맞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촉진 교육 실시

사례 관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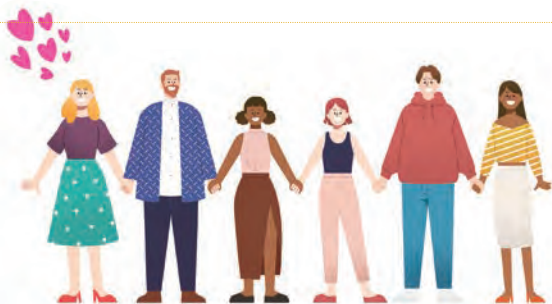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제공

이중언어환경 조성

가정 내 부모-자녀가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지원



달라 보여도
모두 같은 가족



함께 봄,
연듯빛 새싹을 담은
심포의 설렘

[사랑의 사계절] 이해인 시 中



달빛 가득 [정월 대보름]

다문화가정 생활지원

우리나라의 4대 명절 중의 하나인 정월 대보름은 새해 처음 맞이하는 보름달이 뜨는 날 풍년을 기원하고 달을 보며 소원을 빌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곡밥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럼 깨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문화가 낯선 초기 결혼이민자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램 활동 방법을 담당자가 안내하자 초롱초롱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꼭꼭 새겨들으며 활동 키트를 받아 가십니다.

새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날, 초기결혼이민자 가족들은 오곡밥 짓기, 부럼 깨기, 보름달처럼 밝은 한지 등 만들기를 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는 모든 가족에게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와아아~ 애들아 모여라

새 학기의 설렘을 가득 안은 예비학령기 교육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뜸했던 센터에 간만에 아이들의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친구들과 엄마, 아빠가 모여 초등학교 선생님께 입학 절차 안내도 받고 학교생활을 미리 엿보는 시간이랍니다.

옛된 모습의 아이들이지만 이제는 초등학생이 된다는 말에 꽤나 의젓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나 대견하고 멋지네요.

무엇보다 필리핀에서 오신 한 학부모님은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선생님께 학교생활도 들어보고,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배울 기회가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라길 기대합니다~



부모! 한~뽀 자라기

부모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집단상담

나를 알고 너를 알고!!

감정과 분노의 원리를 이해하고 양육태도검사로 부모로서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를 통해 **나를 알고**, 영유아기에서 아동·청소년기까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사례를 통해 양육코칭을 받음으로써 **너를 알고**.



집단상담 참여해서 무엇이 좋았나요?

'자녀양육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느끼고 부부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맞다고 알고, 확실한 정보들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다.' 등의 참여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2022년에도 가족의 정서 돌봄 기능 향상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나도 이제 커리어우먼~!!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숨씨도 좋고 재주도 많은 결혼이민자분을 소개합니다.~!!!

외국어 실력은 기본이고 야무진 손끝으로 공예작품 활동까지...
센터 연계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그녀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원어민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신 결혼이민자분들이 거제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출신국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민(중국어)



장주에치(중국어)



김화(중국어)



하연지(베트남어)

함께하는 다문화 플로리스트

매월 월, 화, 수요일에는 센터에 향기로운 꽃향기로 가득해 집니다. 거제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5명이 주3일 비누 꽃바구니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꽃바구니는 거제 관내 주민센터에 납품하여 출생신고를 마친 민원인에게 선물 되고 있어 더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행정 인턴

현재 저희 센터에 행정 인턴으로 근무 중인 로즈씨를 소개합니다. 태국에서 한국에 온 지 3년 차인 로즈씨는 센터에서 업무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로즈씨~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Bravo! My Life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결.정.패.



한국 생활 내가 접수한다~~~!!!

2021년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사업**은 한국 사회 적응 중장기에 접어든 결혼이민자들의 자기 점검과 미래설계를 위해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wici' 프로그램과 함께하였으며, 직업체험 및 한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선주민 모델링을 위한 '사람책 만나기' 등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

감자꽃 필 무렵

가족 친화·문화를 위한 가족 농장 체험

“감자”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누군가에겐 배고픈 어린 시절 맛있는 식사, 누군가에겐 할머니와의 추억, 누군가에겐 휴게소에서 지나칠 수 없는 필수 간식 '감자'

여기, 코로나로 지친 우리 거제시건·다 가족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거제시 가족의 힐링 프로젝트~ 감자 꽃 필 무렵! 추운 겨울, 겨울옷을 입고 심은 감자가 따뜻한 봄 새싹을 틔우고, 무더운 여름 가족들의 보살핌 덕분에 맛있는 감자가 태어났습니다! (2022년에도 함께해요~~)



“가족과 함께 농작물을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돈독해지고,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사를 짓는게 쉽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구요. 또한 농민의 노고로 우리가 풍성한 밥상을 쉽게 즐기고 있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체험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자에 싹이 나서



일이 나서



감자감자 넵넵!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휴(休), 우먼 스토리

맞벌이 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오늘 하루, 당신의 일과 가정은 어땠나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진 않았나요?
멋진 아빠, 당찬 엄마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 chater. 01 워킹맘의 [나를 위한 시간]

퇴근 후 다시 출근... 24시간이 모자란 워킹맘은 늘 슈퍼우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워킹맘을 위한 홈 필라테스, 마크라메 드림캐처 공예 체험으로 워킹맘들의 달콤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chater. 02 아빠와 자녀를 위한 [아빠 놀이터]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미안한 남편, 그리고 아빠의 자리...
오늘은 아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워킹 대디에서 육아 대디로 변신하는 날!!!
아이와 함께 신나게 놀아주는 아빠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사랑을 품어 행복한 5월, 오월 愛



가정의 달 기념 비대면 프로젝트

전 세계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긴 시간 동안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센터에서도 다양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코로나 블루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거제시 가족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이기에 서툴렀기도 했고,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주셔서 더욱 행복한 5월이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가정의 달 기념, '오월 愛'를 통해 가족 사랑의 기운에 흠뻑 젖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온 집콕의 달인 가족사랑 10일 챌린지! & 우리가족건강간식(피자) 만들기 활동을 통해 가족 愛가 뽀뽀!



성년의날 기념 이벤트



가족 공모전 <가족사진, 가족화, 가족수기>



“누구에게나 가족이 필요하다”

현대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공부, 직업 및 직장, 결혼, 가정, 자녀 돌봄, 노후 등 일생의 많은 문제 앞에 고민과 시련,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삶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수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 속 힘이 되는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있기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월 21일(둘이서 하나 되는) 부부의 날,
우리 부부만의 특별한 추억도 떠올려보고,
부부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꽃다발과 미니 케이크는 덤으로~♥



부부의날 기념 공모전 당선작 / 건강한 부부 싸움 노하우(육아에 대해 의논하기)

저희는 결혼한 지 6년차가 되어가는 아들 둘의 부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니, 아주 사소한 것에도 서로의 살아왔던 가정 환경, 교육관 등이 다르다보니 의견이 다를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책상 앞에 앉아 공부지도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 오래 앉아서 애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훈수를 두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그럼 저는 속으로 '지가 애를 가르치기나 하나?'하고 욕해서 싸우기도 하지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를 위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를 위하지만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고, 말을 안하는 냉전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며 지지고 볶는 시간을 지나 이제는 조금씩 해답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맥주 한잔에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드라이브 길에 천천히 서로를 설득도 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오붓한 시간을 통해 제가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남편을 칭찬해 줄 때도 있고 제가 의견을 강하게 내세울 땐 남편이 제 의견을 들어줄 때도 생기는 것 같아요. 부부는 서로 진짜 안맞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서로 화해하고 마음이 통하면 참 좋은 인생의 반려자가 될 수 있나 봅니다.

이 글을 쓰며 참 느끼는 바가 큼니다. 너무 주관이 뚜렷한 মানুষ을 만나, 참아야 될 것도 많은 우리 남편, 그래도 মানুষ을 믿고 많은 것을 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저녁 퇴근길에 두 아이를 챙겨 부랴부랴 집에 늦게 올 때면 행여 아이들이 배고플까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우리 남편, 밥 다 먹고 제가 애들 씻기는 동안, 본인도 피곤할 텐데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뽀뽀해놓고 깨끗이 해놓은 우리 남편,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서 참 행복합니다.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되어, 2022년에는 웃는 모습으로 현장에서 우리 가족들을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거제시의 모든 가족 파이팅!



함께 여름,
소나기를 닮은
감탄사의 열정

[사랑의 사계절] 이해인 시 中

뜨거운 여름 - 초복이 데이(DAY) ~

다문화가족 복날(伏날) 체험



한국의 이열치열 문화를 알고 계시는가요?

오래전 한국 조상들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방법으로 삼복(초복, 중복, 말복)의 여름 절기에 보양식을 섭취하였습니다.

그 중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삼계탕을 들 수 있는데요.

삼계탕은 대추, 인삼, 마늘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와 닭을 함께 먹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원기 회복을 돕는 음식으로 지금까지도 즐겨 먹는 보양식 중의 하나입니다.

과연 결혼이민자분들은 생소한 삼계탕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원기회복날



더운 여름 가족이 함께 맛있는 삼계탕을 나눠 먹으며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쓰는 부부 이야기

사랑 넘치는 부부 워크숍

사회의 모든 기초 구성이 되는 “가정”에서 “부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욱 다양해진 가족 구성원이 많아진 요즘 가정의 출발이 되는 “부부”의 의미가 더욱 소중하고 절실히됩니다.



열러라(open) 몸과 맘, 돌아라(cycle) 몸과 맘,
사랑하라(love) 몸과 맘, 감사하라(thank) 몸과 맘, 성장하라(grow) 몸과 맘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활성화사업으로 부부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일시 | 2021. 6. 12.(토) ~ 6. 13.(일) 1박 2일

장소 | 장승포 흥포레스트호텔

대상 | 관내 거주 부부 15쌍

부부들은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 게임, 부부 단성독, 배우자 선택 과정, 원가족 경험과 현재 부부관계 연결, 신체감각과 감정표현 연결, 부정적 감정 조절 및 화해 신호 만들기, 효과적인 의사소통기법, 뒤집기 명상, 칭찬과 감사의 마음 전달하기, 부부 성장을 위한 변화계획 나누기, 목공 체험(플레이팅 도마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며 부부관계 향상 및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부 워크숍을 참석해보니 배우자의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주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배우자를 더 배려해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나 혼자 잘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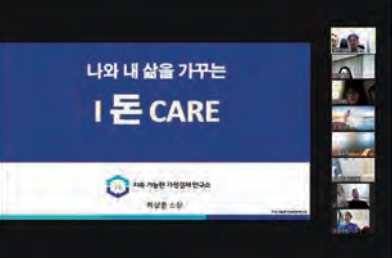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20년 전과 비교해 **16.2%**가량 증가해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31.7%)
출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센터에서는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생애주기별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로 나누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래설계를 위한 재무교육, 혼자만의 시간을 위한 취미활동, 그리고 건강까지...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죠??
다양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1인 가구 참여자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어 더욱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층 1인 가구



재무교육



로잉밴드 운동



무화과 담금주 만들기



우드스피커 만들기

중장년층 이상 1인 가구



밀반찬 만들기



수제 막걸리 만들기



재무교육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시간!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신자오~안녕하세요!”

교실에 베트남 의상을 입고 들어선 낯선 선생님의 모습에 아이들의 시선이 멈추고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베트남에 대한 소개 영상, 베트남 전통의상, 전통놀이까지 체험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했던 오늘... 오늘은 바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수업이 진행된 날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 인식전환, 편견 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이 선생님이 되어 거제 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를 찾아가 상호문화 이해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센터에서는 베트남 선생님 한 분, 중국 선생님 한 분을 다문화 활동가로 모집하여 총 50회에 걸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우리가 되는 방법 다 같이~ 다이음~ 입니다

베트남 다문화 이해 교육



중국 다문화 이해 교육



다(多) 함께 프로그램

여기서 우리 가족 행복의 시작(여우행시)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상호이해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과 문화공존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우
행시**

여우행시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Q 누가 참여했을까요?

다문화가족 150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했어요~^^

Q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총 5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의사소통, 엄마·아빠 나라 문화 이해, 마음나누기 등 세 개의 장으로 나누고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게 함으로써 참여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각 가정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Q 그럼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나요?

네~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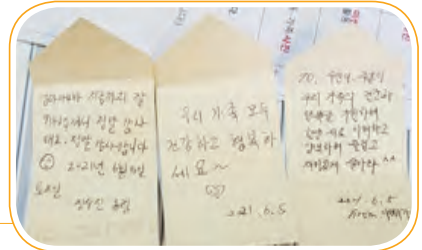
Q 프로그램의 효과와 참여자의 만족도는요?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기 및 가족 사랑 키우기를 통해 가족 간 상호이해 강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중 다양한 구성과 교육적인 측면이 같이 잘 어울렸다는 의견과 프로그램 중 가족의 소중한 마음을 손글씨로 적은 카드로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가족 간 소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의 소소한 소통의 시작
'나의 기분을 말해봐'
[책을 통한 감정소통]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
카드 적기



'가족사랑 키우기'
[전통 놀이 연 만들기]

'가족의 소소한 소통의 시작'
가족의 표정을 만들어보아요!





함께 가을,
산바람을 닮은
감탄사의 열정

[사랑의 사계절] 이해인 시 中

가족의 사계절



웃음 풍년~ 다문화가족 한가위~

다문화가족 추석 명절 프로그램



그동안 코로나가 지속 되어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 그리웠던 고향... 올해 추석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나요?

다문화가족들은 가족과 함께 예쁜 송편도 빚고 멋스러운 한지 접시도 만들어보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조그마한 손으로 조물거리며 송편 반죽을 둥글리고, 아 빠는 찜기를 꺼내 모락모락 송편을 썰내며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꽃이 피입니다. 솜씨 좋은 결혼 이민자의 야무진 손끝으로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의 예쁜 송편이 완성!!

베트남에서 온 타오**영씨는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맛이 좋다고 칭찬을 해주니 보람을 느꼈 다며 한국 명절이 조금 어색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너무 즐거웠 다는 소감을 전해주셨어요. 웃음이 풍년인 다문화가족의 한가위 정취랍니다~~^^



바쁜 일상 속, 나에게 힘이 되는 [가족]

가족문화·가족사랑의 날~ 가족 소통 활동

2019년부터 가족 통합서비스(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기관으로 전환되며 신규 사업으로 실시한 '가족사랑의 날'이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하였던 가족사랑의 날을 기획하며, 2021년에는 매월 1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집합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기에 고민 끝에 가족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개별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회차

바쁜 일상이지만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회차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게임을 하면서 많이 웃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3회차

아이들 다 초등학교다 보니 학교 탈출 놀이를 정말 재미있게 했습니다~
깔깔 웃으며 함께 모여 별명 적는 활동도 즐거웠어요^^



7회차

함께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직접 만든 송편을 먹으며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공유할 추억이 생겨 좋았고 수시로 그 기억을 떠올리며 행복을 이어갈 수 있어 좋습니다.



8회차

가족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9회차

가족과의 시간을 함께 느낄 수 있어 좋았어요
함께한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서로 웃고 즐기고 함께하는 시간이요.



가족의 사계절

가족문화 - 가족사랑의 날

비대면이지만, 가족사랑의 날을 통해 가족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 난 만큼 마음이 가까워지길 바라며, 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대면이기에 한계가 있었고, 서툴렀던 것도 있지만 열심히 활동해주신 가족들 덕분에 더욱 의미 있는 “가족사랑의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시퇴근” 개인별, 가족별 상황이 다르기에 모두가 실천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약속의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가족과 소소한 일상이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듯 말입니다.

4회차

아이들이 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졌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과도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5회차

가족사진을 만들면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알아보는 의미깊은 시간이 되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6회차

가족끼리 애정을 만들고 게임에서 별작도 만들면서 이야기하고 웃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쁘다는 말로 하루에 30분이상 아이랑 이야기 못했는데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가족사랑 캠페인



하나! 산책, 놀이 등 가족과 함께하는 30분
둘! 밥 한 끼 하자,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셋! 우리 가족 손 잡고 가족과 함께 데이트를
넷! 사랑을 전하세요~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 정시퇴근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
가족끼리 배려하는 재미있는 활동
가족과 나눔의 실천

아빠는 최고의 놀이터 [하이파파]

아버지 역할지원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 제2의엄마가 되는 것?

좋은 아빠는 엄마의 역할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하되 아빠의 고유한 영향력을 잘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일 중심으로 사회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들, 이제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역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역할까지 함께 책임지는 아버지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아빠들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슈퍼맨 아빠들이 출동했습니다.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나선 아빠 성장의 첫걸음을 뚝 아빠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족의 사계절

아버지역활지원 - 하이파파



시현이 아빠

바쁜 회사 일로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하이 파파에 참여하며, 오랜만에 아이와 대화하고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교육 자료를 통해, 가르치기만하는 부모에서 진정 함께 놀이를 즐기며 놀아주는 아빠가 되고자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현이 아빠

아이가 자랄수록 아빠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며 많은 생각이 있던 시기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미션을 수행하며 아이와 더욱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고 그렇기에 앞으로는 더 노력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빈이 아빠

딸만 둘인 아빠라 아이들이 자랄수록 무엇을 함께 해야 하나 막연한 고민만 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하지 못했던 어설플 요리실력을 뽐내고 허술한 아빠 놀이를 선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하연이 아빠

회사에 다니며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공부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친해진 것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야외에 나가 연날리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옛날 나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모습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행복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인연, 부부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부부사이 진심인편'

feat. 어디서 깨 볶는 냄새 안나요?

결혼 같은 중대한 일을 맞이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하는 게 많아요. 식당부터 스프레, 혼수, 예단, 신혼집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지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는 부부로서 변화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냉장고, 침대, 소파가 우리 집에 잘 어울리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흔히들 말하는 '부부는 일심동체'는 어쩌면 불가능일지 몰라요.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서로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점들을 조화시켜 개인으로서, 부부로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거지요.

부부갈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이 넘는 세월을 다른 환경, 생활양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해서 원만한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랍니다.

이에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거제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부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원만한 결혼 초기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예비, 신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를 알기 위한 성격유형 검사, 부부 의사소통 및 신혼 가정경제 설계를 위한 재무교육 등 현재나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쌓아 건강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콩달콩한 신혼, 보다 건강한 티키타카가 이뤄지길 바라며

거제시의 모든 예비, 신혼부부를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응원하겠습니다.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 부부사이 진실인편



함께 겨울,
하얀 눈을 닦은
물음표의 기도

[사랑의 사계절] 이해인 시 中





한국의 겨울나기 [다(多) 함께 김치~!]

결혼이민자 김장체험 프로그램

“한국에 오니 밥상에 항상 빠지지 않는 반찬이 김치더라고요.
만드는 건 엄두가 안나 아직 한 번도 해볼 생각을 못 했어요”



한국의 매운맛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 김치!! 그러나 만드는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아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도전하기가 녹록지 않았던 우리 전통음식인데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면 김장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분들이 함께 모여 김치 담그기 체험을 진행한 날!!! 매운 고춧가루가 혀를 아리게하지만 새로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늘 흥미로운 일이라고 하십니다. 김장 덕분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이민자 친구들을 만나 그동안 못다 나눈 이야기꽃을 피우며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아보았습니다. 참! 김치담그기 1일 강사는 김성미센터장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담근 김치로 식탁이 더욱 풍성해질 것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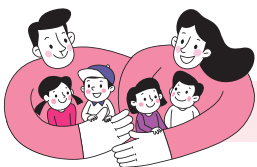


성장하는 아이, 성장하는 부모

부모 마음 돌봄 프로젝트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모가 자기 자신과 부모 됨을 이해하고 자녀성장을 돕는 데 필요한 지식, 양육 태도를 습득하여 자녀 존중 및 수평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부모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효과적인 자녀 양육방법 습득 및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닌, 준비가 필요한 것이기에 부모로서 내딛는 성장의 발걸음을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그거 아세요? 가족(Family)의 의미♡

Father • And • Mother • I • Love • You

큰아이가 5학년이 될 무렵 이혼한 저는 아이들의 사춘기와 함께 표현할 수 없는 막막함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중략) 강의 중 교수님께서서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바뀔 수 있고 잘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며 격려해주시는데 그 한 마디가 어찌나 위로되던지... 무엇보다 아이가 손가락, 발가락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던 날을 기억하며, 내 기분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의 감정을 확인해주는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그저 삶은 어둠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기 부모교육 '어쩌다 부모' 참가자 소감문 중에서

한 여자, 한 남자에서 엄마, 아빠가 된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난 혹시 문제 있는 부모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사실, 문제 부모는 없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이지요.

좋은 부모는 자기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어떨 때 아이에게 화를 내는지, 아이에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를 때는 언제인지, 부모로서 잘하는 것과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나'를 들여보다 보면 내 안에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아이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어요. 혹 그 마음을 만난다면 스스로 괜찮다 위로하고 보듬어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기적으로 찾아온 내 아이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화려한 기술, 멋진 방법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에 건강한 부모 거울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답니다. 혹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수고의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떠세요?

“괜찮아, 잘했어, 고마워, 사랑해”

집으로 떠나는 감성 캠핑

슬기로운 가족사랑의 날~ 가족힐링 홈캉스



코로나로 가족 여행이 쉽지 않은 요즘. 위험하고 찜찜한 집 밖 대신 집안에서 휴식과 편안함을 즐기는 홈캉스는 어떨까요?

멀리 떠나지 않고 그러나 분위기 만큼은 캠핑장 못지않은 기분을 낼 수 있도록 2021 건강가정활성화사업 가족 캠프를 가정에서 즐기는 홈캉스로 진행하였습니다.

멋진 텐트도 치고,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게임과 별치, 캠핑의 하이라이트 캠핑 음식까지!!

집안은 어느새 아늑한 캠핑장이 되어 평소와 다른 감성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에게 특별한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가족 힐링 홈캉스를 통해 더욱 단란하고 화목한 가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찬 바람 부는 한겨울도 봄날입니다”

좋다고 하니깐 나도 좋다 중에서(나태주)

가족힐링 홈캉스

홈텐트 꾸미기



달고나 만들기



가족몸놀이게임 - 럭비공 빼내기



가족 보드게임 - 흔들흔들 해적선



벌칙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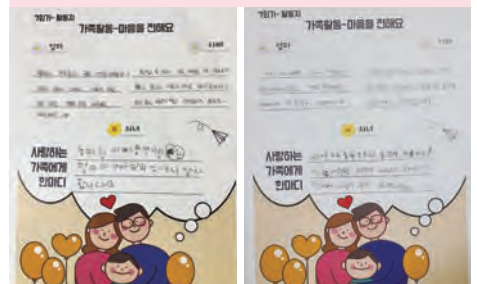
가족요리활동



특특유-진실 게임



가족활동 - 마음을 전해요



놀면 뭐하니? 가족봉사하지!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움 + 보람 = 가족봉사단!

가족 여가, 어떻게 보내시나요?

가족과 함께 모여 함께하는 시간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족 산책, 가족 운동, 영화 관람, 가족과 식사하기, TV보기, 게임, 가족 여행, 가족과 축제 참여하기 등 저마다 다양한 모습입니다. 우리 건다의 가족봉사단은 지구를 위한, 환경을 위한, 이웃을 위한 가족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 건강도, 환경도 GET! 줍깅 프로젝트

스웨덴어의 줍다(plocka up)와 영어단어 달리기(jogging)의 합성어인 '플로깅(plogging)'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신조어로, 가족이 함께 줍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미도, 환경도 GET! 하천정화 프로젝트

가족들과 지구를 닮은 동그란 em 흙공을 만들어 지역 내 하천에 던져 오염물질 제거와 하천의 수질 개선을 돕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랑도, 보람도 GET! 나눔 프로젝트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의 사랑이 있기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든 마스크 줄을 지역내 독거어르신들께전달하며,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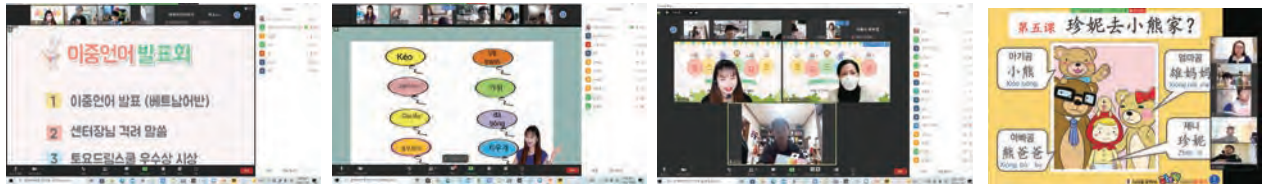
우리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더 사랑해주세요 ♥

꿈을 키우는 교실 [토요드림스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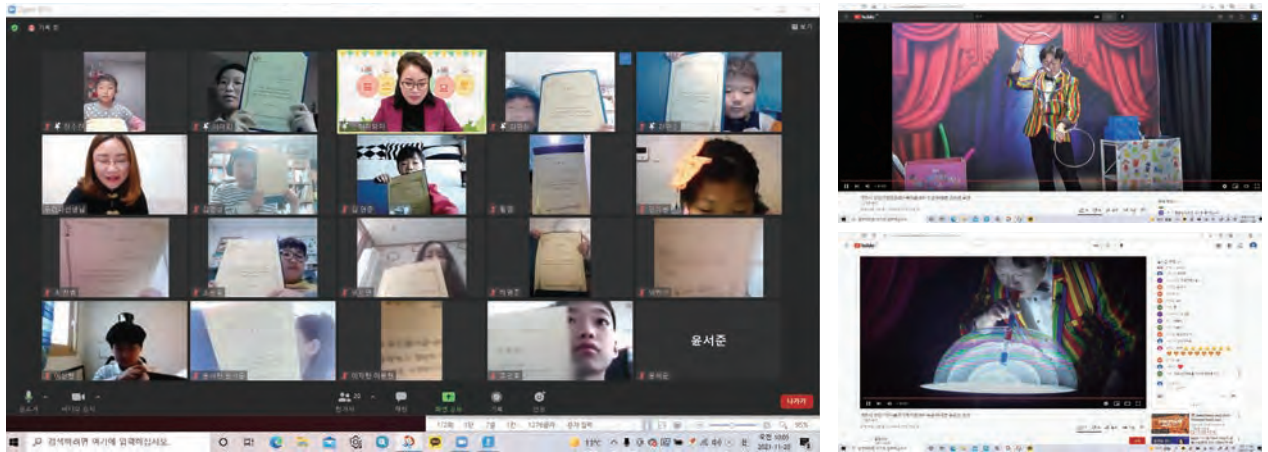
“니하오!!”, “깜언고~자우”

매주 주말 오전 아이들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 바로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배우는 소리입니다. 집에서 어떻게 선생님을 만나냐고요? 온라인(화상) 수업을 통해 내 방에서 편하게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교실 「토요드림스쿨-베트남어, 중국어반」이 있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공부한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친구들 앞에서 마음껏 뽐내는 토요드림스쿨 발표회 날이에요.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초급반, 중급반 친구들과 동생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동안 배운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뽐내는 친구들의 어깨가 한껏 으쓱해집니다. 토요드림 스쿨을 통해 한층 성장한 친구들의 모습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요~”

11월 20일 종강식!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준 친구들에게 성실왕, 발표왕, 숙제왕 상장을 수여하며 격려와 박수를 보냈어요. 덤으로 센터에서 준비한 신기한 마술공연~!! 가족과 함께 보는 신기한 마술과 버블 공연으로 오늘날큼은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렸습니다.



언어 학습의 기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2022년에도 만나요~~~^^

가족과 함께.



나를 알고, 너를 알고, 함께 만드는 가족 행복 이야기

우리 가족! 마음의 온도는 몇 도℃ 일까요?

당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상생활에서 또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심리·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나 개인상담, 부부상담, 임신출산양육상담, 이혼전후상담 등 개인과 가족의 온전한 삶을 향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때론 휴식이 필요한 당신을 위해 응원합니다.

지금 전화(055-682-4959)로 예약하세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나도 너희들이 제일 좋다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민*와 함께 책을 읽고, 숙제하고, 만들기도 하며 수업을 했다. “저는 선생님과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매일매일 공부하면 좋겠어요” 하며 언제나 수업을 기다리던 민*

“선생님~ 학교에서 줄넘기 50번 하기 숙제를 내줬는데 같이 줄넘기해요”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

작은 발로 푹푹푹. 이내 발에 줄이 걸리면 뽕뽕 튀어나온 입으로 못하겠다며 토라지곤 했다. “다시 한 번 해보자~” 몇 번이고 반복하다 두세 번 넘기라도 하면 “했어요! 했어요!”라고 소리치며 좋아하던 너의 웃음소리가 선생님 귓가에 맴도는구나.

엄마와 둘이 살고 있지만 언제나 명랑하고 씩씩하며 영리했던 민*가 선생님은 참 좋았어.

방문지도사로 13년 동안 활동하며 많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할머니처럼(호호호)..... 민*와 아이들이 있었기에 너무나 재미있었고 내 삶에 잊지 못할 한편의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다문화가족 친구들아, 당당하고 멋지게 자라려무나. 너희들은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들이니까. 비록 너희들과 함께한 선생님의 시간은 여기서 멈추지만 나는 항상 기도한다. 너희들로 인해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가 더 밝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말이야.

사랑한다 애들아~

2021년 10월의 마지막 날, 방문지도사 엄정숙 선생님이

함께해서 즐거운 육아 [대표 품앗이를 소개합니다~]



한베짱 _ 공동육아나눔터 옥포동



저희 한베짱은 베트남에서 온 세 가정의 이주민여성들이 모여 형성하게 된 품앗이입니다. 처음에는 타국에 와 아는 사람이 없어 엄마와 아이만 지낼때 자연스럽게 모임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요리 활동, 동화 구연, 만들기 등 놀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엄마나라말(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며 함께 한글 공부도 하며 즐겁게 품앗이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엄마와 아이만 상호작용하며 지낼 때 보다 품앗이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배려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상호작용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게 되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품앗이 활동을 계속 하며 아이들 역시 자연스럽게 품앗이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앗이 한베짱이 될 것입니다.



무지개 _ 공동육아나눔터 아주동



2019년부터 3년째 활동 중인 무지개팀은 서로 다른 동네에 사는 엄마들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진행하는 부모-자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엄마 셋은 각자의 사정으로 4살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아이들 역시 그간 또래를 만날 기회가 적었기에 같이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즈음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품앗이 모임을 지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4살 아이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오다가 2020년부터는 형제자매들까지 합류하게 되었고, 지금은 5살부터 9살까지 총 7명의 아이들이 재밌는 활동을 통해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늘 어때? _ 공동육아나눔터 상문동



‘오늘 어때?’는 노산의 나이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이랍니다. 같은 동네에 살며,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오전마다 등산모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모여진 품앗이입니다. 모두 건강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엄마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전마다 산과 바다를 등산하며 하루의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품앗이 ‘오늘 어때?’는 세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세하며 활발하고 밝은 여자아이들입니다. 공동관심사가 너무 비슷하여 매니큐어 바르기, 요리하기, 발레하기, 그림 그리기, 색종이 접기 등 다양한 재료만 있어도 한두 시간은 금방 지나가곤 합니다. 앞으로도 세 가정의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자연에서 친 사회적으로 뛰어놀며 배우고 경험하며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품앗이가 될 것입니다.



육아정보 공유 및 육아관련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자녀가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사랑방’ 같은 공간

- 이용대상 |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 이용방법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후 이용
- 이용료 | 무료

공동육아나눔터란?

서비스 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장소제공/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 및 활동 장소 제공
- 부모 및 자녀를 위한 상시프로그램 제공/ 장난감 및 도서 무료이용

자녀돌봄 품앗이란?

- 농촌사회에서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번갈아 도와주는 품앗이를 통해 일손을 덜었던 것처럼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

이럴 때 이용하세요!

- 내가 알고 있는 육아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을 때
- 육아에 지쳐 스트레스가 쌓일 때
- 우리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을 때
-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
- 자녀에게 이웃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싶을 때

언어 두 개, 기쁨 두 배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 활동 및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을 지원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에 그치지 않고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통한 소통 증진 및 유아와 놀이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 및 다문화 정체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시 각 가정으로 여러 가지 놀이 활동 재료를 제공하여 온 가족이 함께 놀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함을 더했고, 이중언어 습득과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옛날에는 공기놀이를 이렇게 했단다, 하는 거 잘 봐~’
각 가정(비대면)에서 전통놀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참여대상자들과 가정에서는
얼마나 많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놀이와 무지개 물고기 책을 읽은
다음 무지개 물고기 접기를 하면서
놀이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언어를 아는 만큼 기회가 많아진다>
동영상 시청을 하며
이중언어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쁘고 정다움 주말공부방

외곽지역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정서 지원 및 주말 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공부방 남부반, 동부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학습지를 풀며 공부하고, 클레이로 수국 만들기, 보석함 꾸미기, 종이컵 쌓기, 야채 꽃다발 만들기를 하면서 즐거운 경험을 하는 “예다움 주말 공부방”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클레이로 수국을 만들고 있어요~



보석함을 꾸며서 귀중한 물건을 담자~



알록달록 종이컵을 쌓아요 ^^



야채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함께 있어서, 함께 공부해서,
함께 놀이해서, 함께 경험해서 즐거운 _____
예쁘고 정다움 주말공부방

큰 소리로 말해요! 함께 웃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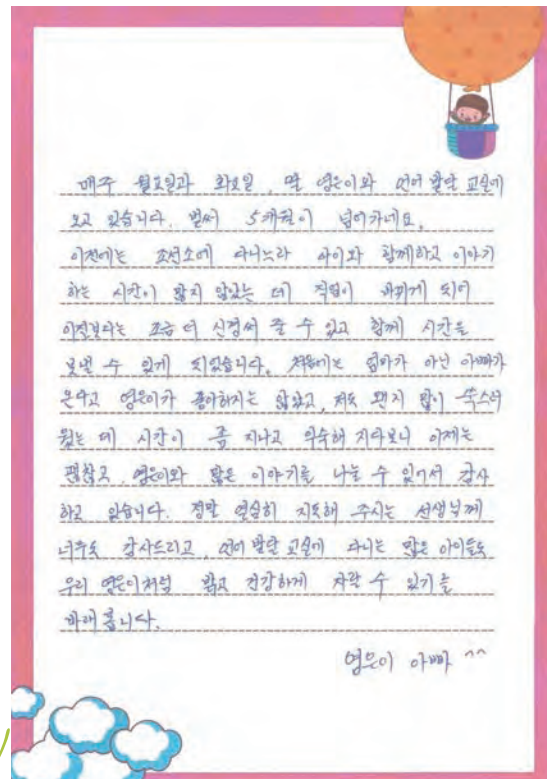
아버지와 함께하는 언어발달 이야기

아동이 언어발달을 할 때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많은 데 외국인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면 다문화 아동의 언어 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가정에서 한국어가 능통한 아버지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가정 내 언어발달 촉진 교육의 참여는 큰 의미를 줍니다. 한국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 대신 아동에게 올바른 언어 모델링을 해줄 수 있고, 아동의 발달에 맞는 수용, 표현력의 향상을 돕습니다. 또한, 어머니와는 다른 표현방식의 발달을 도와 아동이 다양한 표현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언어방식이 보편적으로 문법을 바르게 고쳐주는 방식이나 새로운 어휘를 접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아동에게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하는 언어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상황은 아동의 사회적 의사 표현 상황에 많은 영향을 주겠지요?

아버지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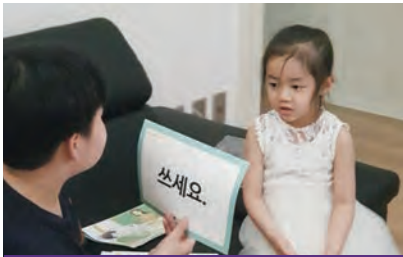
언어발달 수업을 다니고 있는
영은이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습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사랑의 방식이나 표현이 다를 뿐
그 크기는 똑같고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발달 촉진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부모교육을 통한 가정 내 언어발달 촉진 활동 중인 아이들 모습



사업목적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함

사업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서비스 신청

전화(055-681-4953) 문의 후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센터 방문 접수

주민등록 등재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주민등록 미등재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제공 서비스 안내

장소 _ 센터(아주동 본원, 중곡동 본원), 외부기관 ***가정방문불가**

언어평가 _

1. 초기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촉진교육 실시
2. 진전평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언어교육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빠른 진전을 보이는 경우 6개월 미만임에도 실시 가능
3. 종료평가: 진전평가를 통해 언어 수준 정도가 정상범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종료
4. 사후평가: 서비스 종료 6개월 이상 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 전 사후상담 2회 이상 진행

촉진교육 _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촉진교육 실시

1. 주 2회, 회당 40분 원칙(서비스 1회(6개월),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
2. 맞벌이, 자녀양육 등으로 주 2회 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외부기관 연계 수업의 경우, 주 1회 가능하고, 회당 40분 또는 80분 등 탄력적으로 운영

부모상담(1:1) _ 매번 서비스 제공 시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담 진행

부모교육(2인 이상) _ 일상생활에서도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진행

결혼이민자들의 든든한 지원군
[통번역 서비스]



통번역은 나에게 [행복]



센터를 방문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역업무 지원이 이루어졌다.
중국어 통번역사 김영자 선생님의 소감을 들어본다.

“결혼이민자들이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나 자녀들의 교육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내용에 대한 통역, 전·월세 계약확인 또는 이혼상담 등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들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면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내년에도 통번역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통번역은 나에게 [보람]



지난 8월, 10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한 통역업무 지원이 이루어졌다.
베트남 통번역사 이정임 선생님의 소감을 들어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통역업무 지원을 하는 동안 접종 절차를 어려워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 있었어요~
날씨가 더워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과 진행 요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응원합니다~ ♡

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다문화가정을 위한 심리·정서안정 지원, 자립역량 강화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정의 복합적인 어려움이나 문제, 욕구 해소를 위해 가정 방문, 개인 및 가족 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양질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합니다.



경찰서 연계_외사계 위문금 지원



가정방문 상담_가족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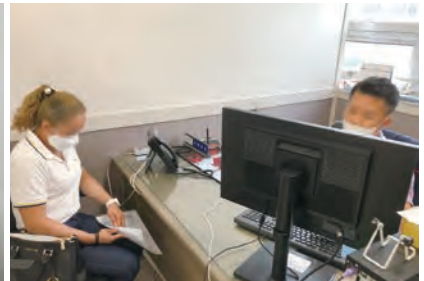
기관발굴을 통한 아동 생필품 지원



네트워크 활동_정보제공



기관 연계를 통한 생계비 지원



기관방문 법률상담



가정방문 초기상담



기관연계_긴급생계비 지원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이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을 찾아주세요~!
다문화가정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례관리사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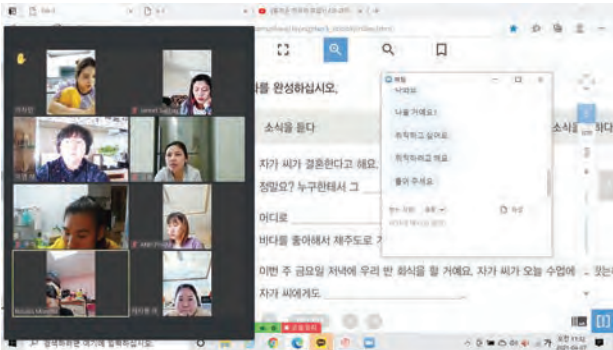
방문, 전화 접수 가능

출발! 한국어 원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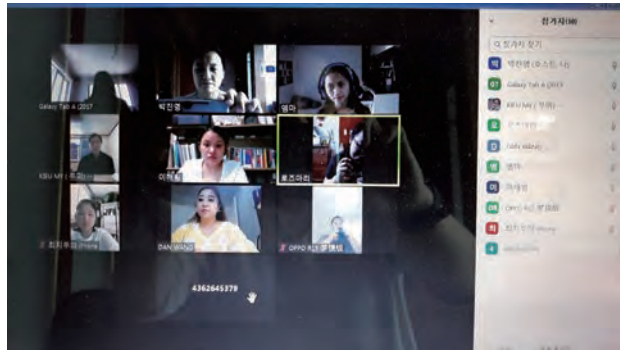


한국어랑 인사하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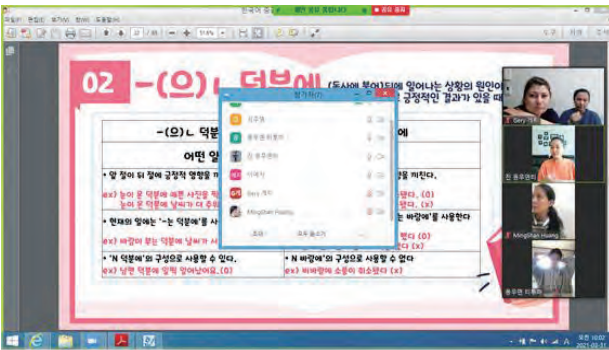
대면 한국의 수업으로 개강을 준비하였으나, 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진자 급증으로 첫 대면 수업 이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토픽반, 자녀학습지도반, 문화반을 개설하여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화면을 통해 얼굴 보며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사진
화면공유와 채팅을 활용하여 수업



온라인 수업사진
화면공유와 채팅을 활용하여 수업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다



드디어 얼굴을보다..그런데..누구세요??
화장하고 이쁘게 꾸미고 오셔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처음 사용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라 다들 생소하고 어려워하였지만, 서로 도와가며 온라인 수업으로 한국어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얼굴 보아요!

민지희 선생님

올 한해는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집합 수업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하게 1년 가까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친숙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고, 수업 준비를 아무리 잘하여도 직접 대면이 아니므로 수업시간 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또한, 온라인 수업 특성상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어떻게 해서든 정확한 전달을 위해 ppt를 만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수업시간에 물이 끓는다며 발표하다가 뛰어가는 학생 때문에 많이 웃었고, 아픈 아기를 업고 달려가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3월, 대면 수업으로 개강한 수업은 지역 내 코로나 19의 확진자 급증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얼굴 한번 본 후에는 계속 온라인으로만 수업하였고 수업의 마지막 활동을 위해 모였을 때를 포함하여 학생들과는 대면으로 딱 두 번 얼굴을 보았다. 온라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쌓인 정이 컸는지 활동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다 함께 끌어안고, 손잡고, 사랑한다고 말하였다. 앞으로도 단체카톡방을 없애지 말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며 왜 한 번만 만나고 이렇게 수업이 종결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말하고 마지막 헤어지는 자리에서는 눈물도 보이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이 와중에 온라인 수업인지라 화장기 없는 민얼굴에 잠옷만 입던 학생들이 화장하고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서로 놀려대기 바빴다. 내년엔 어떤 반을 맡게 될지, 그리고 지금의 학생들을 만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아닌 좋은 친구, 좋은 관계가 생겨 너무 기쁘다.

학생들도 다들 국적과 나이들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른데 서로 언니, 동생 하며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따라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트 절대 빛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 운이 좋아서 마음이 따뜻한 학생들을 만났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과 공부했고, 실수가 있어도 항상 웃어주며 괜찮다고 응원해주는 학생들과 함께했기에 올 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학생과 선생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지금은 끈끈한 정으로 뭉친 친구들이 되어 버렸다. 내년 수업은 계속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지, 대면으로 얼굴을 보고 수업할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보다 더욱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여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늘리고, 본인의 나라 사람만이 친구가 아닌 여러 나라의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학생 간에 중간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여 이제 더이상 한국에서의 삶이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목표이다.

시작은 작지만 끝은 큰~ 작은다문화학교



반별체험활동 [수제청만들기]



반별체험활동 [보자기포장]



사랑을 담아 그대 품안에~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 등으로 센터 내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등을 위해 작은다문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으로 소수로 운영되는 거제면1(외간교회), 거제면2(거제광림교회), 토픽반(아주본원)과 만들기 수업인 문화교실(토탈공예) 반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고, 기초반, 고현반, 초급1,2,3반 지역문화활용반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개설된 문화교실반은 POP 예쁜 글씨 쓰기와 여러 가지 만들기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서로의 얼굴을 화면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아쉬움을 수업의 마지막 시간 반별로 진행하는 체험활동으로 반가운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수제청 만들기와 보자기 포장법을 배우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큰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제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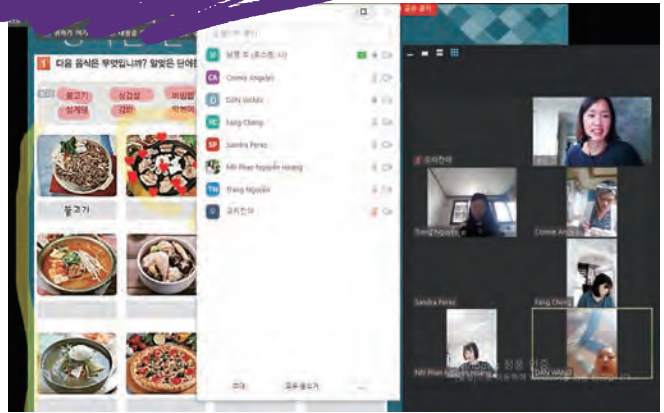
거제면2



문화교실(토탈공예)



온라인 수업사진



토픽반 개강



작은다문화학교



소감으로 마무리하며 감동으로 다시 시작!

조남영 선생님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도 침범하여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대면 수업을 3회 진행한 시점에 국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더는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선생님이 비대면 수업을 제안하셨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학습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사에게도 익숙한 매체가 아니라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PPT 만드는 법, 태블릿 사용법을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하였고, zoom의 여러 기능의 사용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오직 핸드폰 화면 속의 저만 바라보고 있을 학습자들을 생각하며 집에서 여러 번 수업시연을 하며 고쳐나갔습니다. 글씨체도 키웠다가 줄였다가, 그림 자료도 더 눈에 띄게 확대하여 갖다 붙이기를 반복하며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요"에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수업을 들어요."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익숙해집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옥죄어도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적응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버텨시다. 추운 연말, 모든 다문화가정에 따뜻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혜숙 선생님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시작했던 한국어 수업이 어느덧 찬 바람이 부는 10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며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아직은 낯설어 보이던 베트남 새댁 J, 중국에서 온 T, 태국에서 이민 와 한국 생활이 벌써 5년 차라는 S, 인터넷 접속을 많이 힘들어해 이것저것 물어보던 K,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은 낯설고 서투른 시작이었습니다.

어느덧 1년 가까이 함께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언제 그랬었나 싶습니다. 한국어 수업이라는 공통 주제로 한곳에 모여 이제는 모두가 친한 언니 동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속에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만나야 더 정이 들고, 서로의 에너지도 숨겨줄 수 있을 텐데.....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육아하느라 힘들고 바쁜 우리 엄마들 온라인 수업이 한편으로는 시간 활용에 유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좀 위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언어만 가르치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서로가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가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인 저 또한 가르침보다 배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이제 다시 만날 내년 따뜻한 봄날을 기대해 봅니다.

가족과 함께

박숙기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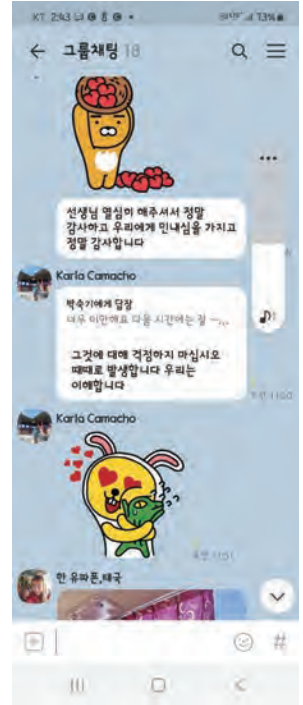
생소하고 부담스러운 화상 수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이젠 오히려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을 보는 것보다 화상으로 모두를 보면서 수업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녀들의 표정을 볼 수 있고 입 모양을 보면서 발음을 교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 이른 아침부터 예쁘게 단장하고 수업에 참여한 00님
- 금방 이불에서 나온듯한 000님
- 남편 따라 출장 갔다가 종종 호텔에서 수업에 참여한 00님
- 아들과 호텔 격리 중에도 그리고 아들의 병실에서도 수업에 참여한 열정적인 0000님
- 항상 수줍어하면서 생글생글 웃는 귀여운 000님
- 모범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질문 잘하는 00님, 00님
- 완전 초급이라 대면 수업이 필요했던 000님, 000님, 0000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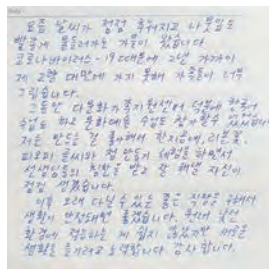
내가 그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녀들을 위해서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녀들이 나의 가족, 나의 동생, 나의 딸처럼 느껴졌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아찔한 수업을 했었는데 나의 소리가 상대에게 들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완전 대형 사고였습니다. 나는 그녀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파워포인트 창에 채팅 형식으로 수업을 하였고, 손짓, 발짓하며 힘들게 수업을 마쳤습니다. 2시간 동안 흘린 땀은 엄청났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그녀들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진심이 통했음을 느꼈고,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 가정은 웃음과 온기가 있습니다. 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언니, 하하 호호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녀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녀들에게 다가갈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들이 남편의 나라 한국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수강자의 소감문



수강자 샤오원화님께서 직접 POP로 꾸며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수강자 샤오원화님



동참해주신 고마운 분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라는 어려운 고비를 힘겹게 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함께해주신 지역의 유관기관과 나눔을 실천해주신 많은 분이 있어서 따뜻하고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동참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거제시상공회의회 전자레인지 지원



맑은샘병원 외 6기관 사랑의 성금전달식



거제시청 동백봉사회 추석맞이 지역사회상품권 지원



더불어 함께, 행복한 나눔

딩동~ 땡땡~ 행복 나눔 배달이 왔어요~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눔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양파 지원



사단법인 드림씨드 저소득 아동 토요일 점심도시락 지원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테블릿 지원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식료품 키트 지원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선풍기(2대) 지원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선풍기(8대) 지원



방파제 장학회 후원물품 지원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약상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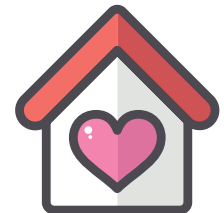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우삼겹 샤브샤브 밀키트 지원



한국생활개선거제시연합회 양념고추장 지원



한국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생리대 지원



기관 물품 연계로 다문화가족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되는 어울림
같이의 가치 價值



& 함께 걸어요. 그러면 더 행복합니다.



거제경찰서 외국인범죄예방교실 교육



거제경찰서 학용품지원
- '무지개 꿈키트' 전달



거제경찰서,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학과시험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센터와 협약한 소중한 인연들

2021년

3월 둔덕골 지역아동센터
 6월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8월 덕포 어촌계

6월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6월 의료법인 동과의료재단 맑은샘센터병원

2021년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들

가람엔지니어링, 거제섬김의교회, 엘르메디여성의원, 좋은아침(주), 맑은샘센터병원, 맑은샘병원, 굿뉴스요양병원, 솔향요양원, 정원요양원, 사랑의 집, 목련주간보호센터, (사)생명나눔실천본부

2021년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수입			지출		
구분	금액(단위:원)	비율(%)	구분	금액(단위:원)	비율(%)
전년도 이월금	15,484,923	74.5	가족문화 사업비	1,000,000	5.8
지정후원금	2,500,000	12	다문화가족 생활지원사업비	2,000,000	11.6
비지정후원금	2,800,000	13.4	다문화가족 자녀 의료비 지원 사업비	475,000	2.8
예금이자	3,983	0.1	다문화 가족 봉사단 사업비	400,000	2.3
			공동육아를 위한 품앗이 지원 사업비	1,000,000	5.8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비	12,339,584	71.7
합계	20,788,906	100	합계	17,214,584	100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 협약 및 자원연계를 통해 다양한 가족들의 안전성 및 건강성 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 문의 | 후원 담당자 070-7882-1508



public relations **홍보 2021년**

| 언론 보도 |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덕포어촌계, 교류협약

육포2동 덕포어촌계 (계장 이형표)는 지난달 30일 덕포마을 회관에서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성미)와 교류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상호 교류를 통한 어촌문화 증진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양 단체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으로 이들은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참여하며, 어촌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레크리학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 우호 협력 증진에 나선다.

또 해녀 양성교육을 받은 다문화 가족은 덕포에서 해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덕포항 발전을 위한 협력기로 됐다.

이밖에도 덕포어촌마을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귀어·귀촌·수산분야 임종에 중재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특히 덕포어촌계는 거제시 다문화가정 절반이 덕포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수산업 분야에 이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육정훈 기자**



BUSAN.com

거제시, 예비·신혼기 부부 대상 '부부사이 진심인편' 프로그램 진행

연락처: 선문기자 news@busan.com
 문의: 051-610-14880 / 수화: 051-610-14890 / 팩스: 051-610-14790

부부사이 진심인편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거제시 예비·신혼기 부부 대상 '부부사이 진심인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BUSAN.com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의 달 맞아 가족사랑이 가득한 5월! 오월애(愛) 실시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월애(愛)' 행사를 실시했다.

| SNS 게시 |

둘(2)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사이 진심인편

좋아요 25개
 gjmfc 댓글이네요!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알리미, 건드립니다!
 :D

가정의 달이 오월애(愛)인 "부부사이 진심인편"을
 부부사랑을 위한 이번달의 사랑과 연심을 글로브를
 통해 유신으로 보내드립니다!
 남편가족실 참석(10가족)을 마치고 찾아드립니다!~*

청년 인가주 지원사업
 나 혼자 잘 산다

좋아요 18개
 gjmfc 댓글이네요!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알리미, 건드립니다!
 :D

1인 가구 사업의 관심으로 참여인원!

아이 파파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
 '아이 파파, 잘 오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좋아요 20개
 gjmfc 댓글이네요!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알리미, 건드립니다!
 :D

일·가정 양립에 중요해지는 요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
 '아이 파파, 잘 오세요!'

모집대상: 5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어버이(20가정)
 *신청대상지(미차여가) 유선신청

모집날짜: 2021년 8월 23일(월) 9시~8월 30일(일)

정신건강복지교육
 어찌다부모

좋아요 16개
 gjmfc 댓글이네요!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알리미, 건드립니다!
 :D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부모님들의 우려와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어찌다 부모'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모집대상: 예비, 청소년기 자녀(초등 3학년~고급학급)를
 양육하는 부모님 20명

정신건강복지교육
 양성평등 캠페인

좋아요 17개
 gjmfc 댓글이네요!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알리미, 건드립니다!
 :D

매년 9월 첫째 주는 성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

올해 9월 첫 주로 진행되는 양성평등주간은 2021년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발전선언문, 여성운동이 발원한

슬기로운 가족사랑의 날
 9회차

좋아요 20개
 gjmfc 댓글이네요!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알리미, 건드립니다!
 :D

거제시 내 정서회 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2021년 마지막! 11월 둘째 주 행사를 마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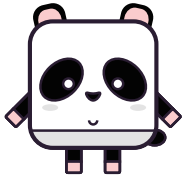
모집대상: 가족사랑 캠페인 참여한 거제시 가족
 가족(11월 8일~11월 14일) 있는 가정입니다!
 *시각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 기관 방문 |





사랑으로 하나되는 어울림
같이의 가치 價值



건다와 함께

[건다]는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소식알리미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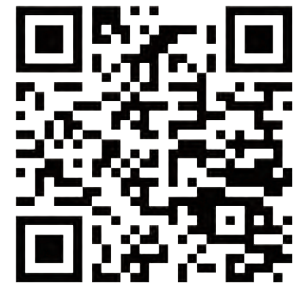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geoje.familynet.or.kr/>



인스타그램
 @gjtmmc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SkKUj



홈페이지(다문화가족)
<https://www.liveinkorea.kr/>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번호 055-682-4958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상담사업 055-682-4959	사례관리사업 070-4218-6995
옥포동 055-688-5816	통번역서비스 055-681-4960	이중언어 환경조성 070-4218-7025
아주동 055-682-4942	언어발달지원 055-681-4953	한국어교육 070-4264-6114
상문동 055-635-4955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래요?

공동육아나눔터 옥포동



네이버밴드
<https://band.us/n/aca662S1TdQfp>

공동육아나눔터 아주동



네이버밴드
<https://band.us/n/aaae6dS5T807X>

공동육아나눔터 상문동



네이버밴드
<https://band.us/n/a8a066ScTaX9R>



여성가족부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Geojeseo Healthy Famil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발행처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발행일 2021. 12. 31.
발행인 거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성미
편집인 팀원 주희아
주소 경남 거제시 탐곡로 75(아주동 290) 거제시노동복지회관 2층
전화 055-682-4958
홈페이지 <http://geoje.familynet.or.kr/>
E-mail gjtmfc@hanmail.net